



[금융]
대출빚장 풀렸지만
강화된 DSR에 발목
05



Economy

코스피	2926.72 (-28.17)	코스닥	980.38 (-14.78)
금리 (우대금)	2.058 (+0.043)	환율 (원/달러)	1199.10 (-2.40) (10일)

CES 밖 '냉혹한 현실'... 글로벌 기업의 혁신은 진행형

코로나 여파 CES 불참 기업들
온라인 통해 기술력·성과 과시

GM '3단계 자율주행' 주목
웨이모, 레벨4 무인차 상용화
아마존, 인포테인먼트 출시표



GM이 공개할 예정이었던 실버라도 EV(위)와 페덱스가 GM의 전동 파레트로 배송하는 모습. /각사

CES2022는 한국 기업이 전세계에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혁신적인 기술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가를 포기하거나 규모를 축소한 기업들도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대신 이들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서나 개별적으로 기술과 사업성과를 소개하면서 부족하지 않은 사업성을 과시했다. 다양한 협업도 이어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GM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2 개막을 며칠 앞두고 부스 참가를 포기했다.

GM은 이번 전시회에 얼티움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얼티파이, 그리고 이를 통해 물류를 혁신할 브라이트 드롭과 EV600 등 차량과 신형 전기차까지 다양한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었다. 올해 CES에 참가한 자동차 기업 중에서는 규모도 가장 컸다.

GM이 부스 참가를 포기한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산이다. 미국 현지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맹위를 떨치면서 안전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고 부스를 공백으로 남겨둔 것.

GM뿐이 아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인 웨이모도, 아마존도, 메타(페이스북)와 트위터 등 IT 기업들도 개최를 열흘 가량 앞두고 대면 참여 취소를 공식화했다. T모바일은 기조연설까지 포기하며 완전히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혁신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각사는 전시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개별적으로 성과를 발표하면서 여전히 기술 리더십을 뽐냈다.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에서 새로운 솔루션과 기기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우려했던 '냉혹한 현실'은 CES2022 기간에도 보이지 않게 이어져왔다는 얘기가.

특히 GM은 온라인 기조연설만으로도 '이펙트' 있는 내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얼티움 플랫폼과 얼티파이를 활용한 미래 전략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얼티엄 효과'를 주제로, 실버라도EV 등 신차들은 물론, 3단계 자율주행 '울트라 크루즈'도 주목할만한 핵심 기술이었다. 내년 초 캐딜락 셀레스틱에 적용돼 손을 놓고 주행할 수 있는 '도어 투 도어 핸즈프리'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업계에서 3단계 자율주행을 먼저 상용화하는 회사는 현재로서는 GM이 유력하다.

웨이모도 CES2022에 4단계 자율주행 트럭을 공개하기로 했었다. 이미 미국 현지 일부 지역에서 무인 차량을 상용화한 상황, 여기에 실제 활용하고 있는 세계 최초 호출 서비스인 '웨이모 원'도 있다.

서비스 모빌리티도 양사의 핵심 발표 내용이었다. GM은 자회사인 브라이트드롭이 페덱스와 월마트와도 협력을 확대하며 수천대의 상용 트럭을 공급하기로 한 바를 밝혔고, 웨이모도 자율 식료품 배달 모빌리티를 현장에서 소개할 계획이었다. 현대차도 CES 2022에서 PhD 모듈로 만든 로지스틱스 모빌리티를, 현대모비스도 목적 기반 모빌리티(PBV)인 엠비전을 공개한 상황, 운송사업의 미래를 둔 경쟁은 아쉽게 성사되지 않았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쌍용차-에디슨모터스, M&A 본격 계약 합의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자동차가 인수·합병 투자 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쌍용차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가 지난해 11월3일 M&A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두 달여 만에 본격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모습. <관련기사 8면> /뉴스IS

작년 FDI 295억 달러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기준 전년비 42.3% ↑
경제회복·공급망 확충 기여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00억달러에 육박하며 1962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제조업 FDI는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발표한 2021년 FDI는 신고기준 전년 대비 42.3% 증가한 295억1000만달러, 도착기준으로 57.5% 증가한 180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이어 외투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경제회복과 공급망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 신고금액 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서비스업(+64.2%, 비중 79.9%), 기타업종(+122.9%)은 크게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감소(-16.2%, 비중 17.0%)했다.

서비스업 외투는 235억7000만달러로 정보통신(+317.2%), 도·소매유통(+139.1%), 사업지원·임대(+833.0%)

등의 업종에서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1분기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 민족 인수(21억달러 투자) 등 온·오프라인 연계(O2O), 전자상거래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 투자가 유입되며 정보통신업 비중이 12%에서 30%로 크게 증가했다.

설비투자 등을 동반하는 관계로 서비스업 대비 회복이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제조업 외투는 50억달러 규모로 줄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제조업(+81.8%), 제지목재(+833.4%), 금속(+77.2%) 등의 업종은 증가한 반면, 섬유·직물·의류(-97.4%), 식품(-42.3%), 기계장비·의료정밀(-18.5%)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신고금액 기준 미국(-0.9%, 52.6억달러)은 감소, 유럽연합(영국포함, +169.0%, 128.0억달러)·일본(+52.8%, 12.1억달러) 등은 증가로 전환됐고, 중화권(중국·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 +38.1%, 75.4억달러)은 지속 증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가성비냐, 가심비냐... 식품업계 상품 양극화

가정 간편식 등 고급화로 차별화
가격경쟁력 앞세운 PB제품 붐몰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하는 패턴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내식이 일상화되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좋은 원료와 조리법을 사용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거나, 지난해부터 상승한 물가 탓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PB 제품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

10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가정 간편식(HMR) 구매 빈도가 크게 늘었다. HMR은 단순히 한끼를 때우는 인스턴트 개념을 뛰어넘어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다. 식품 기업 외에 유명 맛집과 호텔 등도 나서 프리미엄 간편식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들의 눈높이가 높아지자 식품업계는 기존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품군을 늘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냉동만두 경쟁이 치열하다. 국내 냉동만두 시장은 CJ제일제당이 '비비고'를 앞세워 47.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위는 풀무원이 13.7%, 3위는 해태가 12.5%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비고 아성에 대적하기 위해 풀무원과 해태는 냉동만두의 고급화 전략을 세웠다. 풀무원은 지난해 '얇은피 확장속 만두'의 후속작으로 풍부한 속 재료를 0.7mm의 얇은 만두피가 세모 모양으로 감싼 프리미엄 냉동만두 '얇은피 확장 세모만두' (세모 알피만두)를 출시했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고향만두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명가 고향만

두'를 론칭하고, 고기만두와 김치만두 등 2종을 출시했다. 기존 고향만두로 가성비 시장, 신제품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오뚜기와 롯데푸드는 식감과 육즙이 살아있는 'X.O만두'와 'Chefood 고기 통교자'를 각각 출시하며 냉동만두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식품업계가 프리미엄 제품군을 확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에게 소비를 아끼지 않는 MZ세대의 성향도 반영됐다. 제과업계도 기존 가격을 뛰어넘는 프리미엄 제과 상품을 내놨다.

농심은 지난해 '새우깡 탄생 50주년'을 맞아 '새우깡 블랙'을 선보였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李, 윤석열에 “여가부 폐지 넘어 대안 제시해야”** /사진 뉴시스
▲ **尹 “주52시간제 국민합의 재도출... 유연화하고 충분히 보상”**

▲ **민주, 국힘 ‘멸공 인증’ 릴레이에 “일베놀이·구시대적 색깔론”**
▲ **국힘, 김만배 측 ‘이재명 지시’ 언급에 “몸통 자백했다” 특검 요구**



▲ **安 ‘공동정부론’ 두고 “성립 불가능...尹 만날 가능성도 없다”** /사진 뉴시스
▲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출신 8명 민주당 복당 “이재명과 정당혁신”**